

“마스터 레이스 11” 타케우치 슈텐

이름 : 타케우치 슈텐(武内 秀典)	코드네임 : 과거 샤를 마뉴(절인 황제), 본래 “마스터 레이스 11’(람다)”
성별 : 남	생일 : 5월 24일
연령 : 17	신장 / 체중 : 165cm / 54kg
브리드 : 퓨어브리드	좋아하는 것 : 공상, 관찰
신드롬 : 발로르	싫어하는 것 : 번거로운 일, 시끄러운 사람
웍스 / 커버 : FH 레니게이드 비잉 / FH 셀 리더	거북한 것 : 코미야 마나토, 츠즈키 교우카
소속 : FH/ 코드웰 셀	

■ 코드웰의 정예

FH에 소속된 "마스터 레이스"들 중 하나이다.

코드웰 박사가 앞세운 우수한 에이전트이며, 그 자체로도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 특히 중력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능력에 특출나다.

냉정한 성격에 늘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직접 나서기 전에 사태를 그곳이 관찰하는 치밀함이 있다. 자신의 방해가 되는 것에 한해서는 잔혹하고 호전적이며, 전투시에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상대를 압도한다.

요한 C. 코드웰이 다니는 스미 학원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 위치한 다른 학원—세이 학원에 위장전입하고 있다. 신분 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이다.

● 알프레드 J. 코드웰

코드웰 박사를 따르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FH에 소속된 과거가 있지만 면대면으로는 전혀 접점이 없었던 코드웰과 슈텐이 어떤 경위로 알았고, 그 밑에 들어가게 된 것인지는 불명. 본인은 이야기할 생각이 없어보인다. 이것은 박사도 마찬가지이다.

● 마스터 레이스 11'

"마스터 레이스"들 중에서도 꽤 신예에 속하지만 본인은 소문이 어쨌든 개의치 않아한다.

무자비한 능력으로 상대를 짓눌러버리고, 자신의 의지가 있다면 사람은 물론 주변마저 파괴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는 그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병기와도 같은 강렬한 느낌을 준다.

개인의 성정 탓에 부하들을 데려오기보다 스스로 적진에 들어가 초토화시키는 작전이나 그 자신이 미끼가 되는 대범함을 보인다.

부하들에게는 확실히 선을 긋고 필요 이상의 임무를 시키지 않는 계획성과 예리함 덕분에 신망을 얻은 편이다.

● 셀의 리더

포지션 상으로 중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코드웰 셀 내부에서도 자신의 셀을 갖고 있으며 그 셀 내의 인력지휘와 지시 등 참모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정보의 중개, 특정 계획의 서포트 임무 등 전략적인 일을 많이 맡는다.

● 츠즈키 교우카

과거 츠즈키 교우카와 대면하여 일시적으로 플랜에 협조하게 된 적이 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 이후 츠즈키 교우카를 비롯한 제노스라는 조직 자체에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제노스의 작전에 방해공작을 해오기도 한다.

FH 에이전트가 본 슈텐의 하루

<p>0600 기상: 생각 이상으로 잠이 없는 편이다.</p> <p>0630 준비: 소식도 없이 바로 외출의 준비를 한다.</p> <p>0730 정찰: 디멘션 게이트로 자신의 관할구역들을 정찰. 거치는 구역이 매번 다른 건 기분 탓인가?</p> <p>0750 전투: UGN의 방해꾼을 발견, 처리해 즉시 보고했다.</p> <p>0930 소식: 보고를 마친 후 뒤늦은 소식.</p> <p>1050 등교: 5일만의 등교. 수업을 듣지만 내용은 흥미가 없는 것 같다.</p> <p>1200 중식: 시끄러운 교실에서 빠져나와 느긋하게 옥상에서.</p> <p>1320 의뢰: 박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학교를 빠져나온다. 교전의 제압을 위해 장소로 이동.</p> <p>1550 완료: UGN 에이전트들을 무사격퇴. 다른 에이전트에게 뒷수습을 맡기고 경과보고.</p>	<p>1630 시험: 셸로 귀환해 코드웰 박사와 면담. 그 후 간단한 능력의 테스트를 한다.</p> <p>1730 종료: 총동조절 테스트 끝. 이상 무.</p> <p>1830 지시: 자신의 직속 에이전트들에게 현황을 공유, 지시를 내려둔다.</p> <p>1910 외출: 잠시 외출. 의외로 평범하게 편의점이나 책방을 들린다.</p> <p>1930 석식: 관할 에이전트들에게 현황을 보고받은 후 석식.</p> <p>2030 전투: 요한에게 도발을 받고 대치, 전투가 된다.</p> <p>2130 중단: 요한이 연락을 받아 이탈. 전투중단.</p> <p>2230 전투: 자신의 셸 소속 에이전트의 심야훈련에 참여. 적당히 상대해준다.</p> <p>2350 종료: 성과를 피드백 후 바로 다음 일정을 잡았다.</p> <p>0040 귀환: 귀환 후 바로 정리. 꽤 시간이 걸린다.</p> <p>0230 취침: 책을 읽다 뒤늦게 잠에 든다.</p>
--	--

타인으로부터의 인물평

●키리타니 유고

그는 아직 밝혀진 게 없는 “마스터레이스”지만, UGN에 있어 위기감을 불러일으킬만큼의 적인 건 확실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의아한 게 있다면, 과거 코미야 마나토라는 칠드런과 함께 UGN에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이런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스터레이스라는 사실이 펄스 하츠 내부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도 미심쩍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새로이 나타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한 치의 방심도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에이전트를 잠입시킨 것도, 박사가 노린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코드웰 박사

"마스터 레이스 11" 람다. 난 그를 봤을 때부터 그의 안에 내재된 “욕망”이 세계에 미칠 파급력을 알아차렸다. 그 잠재력은 가히 인간의 것을 뛰어넘지. 그렇기에 누구보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기에 적합하다 확신하고 있다. 내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다음 세계」를 갈망하는 한 명. 난 그의 욕망이 실현되는 때를 기대하고 있지.

●츠즈키 교우카

제가 과거 잠시 조우한 적이 있는 마스터 레이스군요.

그 또한 다른 마스터레이스들처럼 위험인자 중 하나이지만, 그의 존재는 실로 흥미롭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단순해 인간의 사회에 녹아들어 고도의 진화를 이룩한 개체는 흔하지 않으니까요. 완전한 인간처럼 적응했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저희’와 동류. 몇 가지의 플랜을 제안하고 포섭하려 했지만, 역시 그는 그만의 생각을 이미 갖고있는 듯합니다. 그가 앞으로도 위험인자로서 저희의 플랜을 방해한다면, 비록 동족이라 할지라도 저희의 행동방침은 배제일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유감이군요.

“이제 전부 끝이야.”

은빛 머리의 소년은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다.

또 잃었다.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최선을 다해서 동료들을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전부 잃어버렸다.

“내가 부족한 거야? 아니라면, 왜... 왜 내게 이런 일이... 난 대체 무엇을 위해서 싸운 거야?”

그는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얼굴을 감싼다.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겨우 손에 얻은 인연들을 왜 계속 떠나보내야만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괴로워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닫는다. 그리고 이내, 한 생각에 미쳤다.

“그래. 이런 세계 따위..... 이런 세계같은 건 필요없어...”

소년은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방향을 잃은 것처럼 어느 한 방향으로 향했다. 무작정 발을 떼고 정처없이 E시를 벗어나려던 그 때였다.

“때가 되었군.”

낮고 굵은 목소리와 잠시의 정적이 지난다. 발걸음을 옮기는 소년 뒤로, 한 성인 남성의 그림자가 보였다. 목소리가 들리자, 자리에 멈춘 소년은 채 마르지 않은 눈으로 그 사람을 돌아보았다.

“...당신은?”

소년은 어리둥절해했지만, 그러면서도 왠지 모를 기시감이 느껴지는 그 남자에게로 차츰차츰 다가간다.

“람다, 너라면 알고 있을 터.”

그 말에 소년은 한동안 말을 잇는다. 이 금발의 남성에게서 뭔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내려는 것처럼, 눈이 동그해진 채 응시하고 있다.

“...역시 알프레드 J. 코드웰인가.”

탁하고 무거운 침묵 끝에 소년이 꺼낸 말. 그리고 그 단어를 내뱉는 목소리는 아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풍기며 착 가라앉아있다.

코드웰이라 불린 금발의 남성은 변하지 않는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그 소년을 바라본다.

“마스터레이스 람다. 이제부터, 네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람다는 묵묵히 코드웰을 마주 본다. 둘은 불과 수 분만에, 마치 익숙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시선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건 무엇이죠?”

소년의 표정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망설임도, 울분도 없는 편안한 표정이다. 오히려 이 상황이 즐거워보인다.

“이제부터 UGN E시 지부를 급습해라.”

람다라 불린 소년은 그 말에 자신의 손을 본다. 기묘하게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어 대답한다.

“...네.”

짧게 대답하는 람다의 냉혹한 눈빛은 불길한 그림자를 품고 있다. 람다는, 코드웰의 지시를 받아 홀연히 한 곳으로 향한다.

...방금 전까지 그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1인칭 : 나(私), 나(俺)

2인칭 : 너(君), 너(お前) 이따금 네너석(貴様)

말투 : 위아래를 구분하여 사용. 기본적으로는 사근사근하고 상냥한 성격에 맞춰 공손한 말투를 하고 있다. 다만, 화가 났거나 레니게이드가 폭주하는 등 일부 상황에서는 좀 더 거친 어투로 바뀐다.

평소에는 ~だね、~だよ、~だろ?

인사 **1** 「난 타케우치 슈텐. 갑작스럽지만, 너에게는 말해줘야 할 게 있을 것 같네.」

인사 **2** 「잘 왔어. 네가 누군지는 관심없지만, 걸리적거리네 너석은 치워야겠지.」

호감도(악) 「그렇게까지 해서 내게 반항할 셈인가? 네 명줄만 재촉할 뿐일텐데.」

호감도(중) 「...너는 재미있네. 내 앞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 번 시험해볼까.」

호감도(강) 「이 뒤는 네게 일임한다. 앞으로 어떻게 하든, 네 마음대로 해.」

프라이베이트 「(자신의 낙인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비즈니스 「난 받은 임무대로 할 뿐이야.

네너석들은, 이 곳에서 처리당해줘야겠어.」

대화 **1** 「(능력을 쓰며) 내 앞에서 잔꾀를 부려도 소용없어.」

대화 **2** 「난 내가 해야만 할 일을 위해서 움직일 뿐이야. 너희들도 똑같잖아?」

대화 **3** 「네게 이 이상 말하는 것도 시간낭비일 것 같네. 원망한다면, 네 입을 원망하는 게 좋을거야.」

공격 **1** 「음, 이번에는 제대로 버텼으면 좋겠는데.」

공격 **2** 「네가 살아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GM에 대한 코멘트

▼NPC로서의 기능

•의뢰자 : UGN측이 아닌 FH측 PC에게는 "마스터 레이스"라는 입장에서의 의뢰자가 될 수 있다.

그 경우, 대부분은 명령이 된다. 또한 자신이 한 말에 있어 타협이 없는 성격상 일방적이 될 것이다.

•협력자 : UGN에 있어서는 적인 캐릭터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특히 제노스와 대립이 있을 때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협력할 지도 모른다.

•동료 : 날카로우며 좀처럼 타협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임무 상의 비즈니스적 관계나 자신의 부하 관계에 있는 에이전트라면 서포트를 해줄 것이다.

•라이벌 : 맞는 편이다. PC들과 대립하며 첨예하게 방해를 해오는 포지션으로 어울린다.

•시나리오 보스 : 시나리오 마지막에 버티고 있는 적에게 어울린다. 그를 쓰러뜨려 거대한 음모의 일부를 저지시키는 게 일반적일 것이다.

▼주의점

NPC로서는 굉장히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명분이나 목적을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타케우치 슈텐은 레니게이드 비잉이란 본질을 갖고 있으면서,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시나리오에 영입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어렵다면, FH로서의 욕망에 충실한 임무나 코드웰의 지시가 끌어들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타케우치 슈텐의 입지나 지위를 고려해 중요한 작전에 편입시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도 좋다.

▼네타설정(스포일러)

- 타케우치 슈텐의 욕망 : 세계의 변환(모든것을 찢어미로 만든다. 즉, 무로 돌려 다시 구축한다.)
- 타케우치 슈텐은 본디 FH의 칠드런이었다. 발로르 신드롬을 가지고 있던 그는, 임무 중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죽진 않았지만 이 이상 전투에 나갈 수 없는 회복불능상태에 빠졌다. 좌절된 그에게서 마스터레이스의 자질을 알아본 코드웰은 자신의 실험 소체가 될 것과, 새로운 세계로의 변혁을 이끌자고 제안한다. 슈텐은 이에 망설임없이 승낙하고, 실험체로서 레니게이드 비잉 '람다'와 융합실험을 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안요소가 있었으며, 레니게이드 비잉 '람다'의 몸 안에 인격의 형태로 남게 되었다. 레니게이드 비잉 '람다'의 손등에는 레이스 사인(엠블렘 데이터로 표기)가 있었는데, 이게 그 실험의 흔적이다. 레니게이드 비잉 인격인 람다는 기억이

지워진 채로 FH 칠드런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람다의 활동으로 인해 한동안 잠잠해져있었던 슈텐은 어느 순간, ‘람다’의 붕괴(점화)를 계기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신드롬인 발로르였기 때문에, 폭주를 틈타 람다의 몸을 때때로 사용하였다. 람다는 자신의 인연들을 의지했으나, 우연의 일치인지 친구들을 전부 잃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코드웰과 재회, 기저의 기억을 전부 되찾고 마스터레이스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자신이 제정신일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람다’는 마지막으로 마나토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싶어했지만(Return Once) 그것에 실패, 마나토의 로이스는 끝내 타이타스화되어 사라졌다. 그리고 람다는 람다이자 람다가 아니게 되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타케우치 슈텐이었다.

- 레니게이드 비잉은 ‘람다’라는 코드네임으로 코드웰측이 피험체로 삼았다. 유럽의 한 전설인 ‘샤를 마뉴’의 기반인 레전드 레니게이드 비잉이었다. 코드웰은 이에 착안하여 코드네임을 ‘샤를 마뉴’로 지어주게 된다. 이름도 람다가 아닌 타케우치 슈텐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람다와 함께 존재하는 슈텐을 인식해 붙여준 것이다.
- 현재는 레니게이드 비잉 ‘람다’의 몸을 인간의 인격인 ‘타케우치 슈텐’이 차지한 상태이다. ‘타케우치 슈텐’ 자체는 이미 점이었기 때문에, 마스터 레이스 11’ 람다는 점이다.